

### 경주시, 산불전문진화대 조직 남산 불교문화재 등 훼손 방지

경주시는 최근 경주 남산 등지에 산재한 문화재가 산불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불전문진화대를 조직했다. 경주시는 11일부터 5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농촌 유희인력을 활용한 산불전화대원 2개팀 24명을 선발, 운영에 들어갔다. 진화대원들에게는 시가 일직역의 경비를 지급한다. 산불전문진화대는 평상시에는 시정에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돼 초동진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재 및 산림피해를 막는 산불 진화활동과 예방 활동 등을 벌이게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지역의 산지 대부분에는 수많은 불교사찰이나 유적 등이 산재해 있어 산불이 발생하면 귀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뒤따르기 때문에 산불전문 진화대를 통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 울산 정토사, 선지식 설법회 열어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4-5일 정토사 삼천불전에서 법륜스님, 묘허스님 초청 선지식 설법회를 봉행했다. 4일 '올바른 기도법'이란 주제로 사단법인 좋은 벗들이 사장인 법륜스님의 설법회에 이어 5일에는 정토사 주지 덕진스님과 김해 원경사 회주 묘허스님 설법회가 열렸다. 선지식 설법회를 마련한 덕진스님은 "선지식들의 법문을 듣고 불법을 공부하는 일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얻어 그 은혜를 세상에 위해 두루 쓰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며 법회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울산 유일의 조계종신도전문교육기관인 정토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울산 정토사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동안 삼천불전 3천배 참회기도 법회를 봉행하며, 21일 정토불교대학 졸업식을 개최한다. 천미희 기자

### 비슬산 관동도로 불교계 등 반발

대구 달성군이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비슬산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과 함께 유가사와 용연사 일대 공원집단지설지구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의 불교계 및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달성군은 최근 지역발전과 시민편의를 내세워 화원면 분리에 80헥타르 규모의 자연휴양림 조성, 가장 정대리에서 육포 용연사간 6.5km 왕복 2차로 도로개설, 유가사와 용연사 일대 공원 집단지설지구 조성 등 비슬산 개발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구 불교계 한 관계자는 "비슬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내는 등 각종 무분별한 개발로 결국에는 비슬산이 서서히 죽어갈까 될 것"이라며 "일선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좀더 멀리 내다보는 정책입안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진정한 보살의 길은 무엇입니까?"  
"보살의 되려거든 중생을 자식같이 여겨라. 크게 사랑하고 크게 버릴지이다."

6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소극장 무대에서 조계종립 금정중학교(교장 유기운) 연극영상반 '해오름' (지도교사 이석연 교법사) 학생들이 마치 법문 같은 대사를 외며 연극 연습에 한창이었다. 불교연극 '님의 침묵'은 해오름 제2회 정기공연작으로 이석연(42) 교법사가 뮤지컬 '님의 침묵'을 토대로 대본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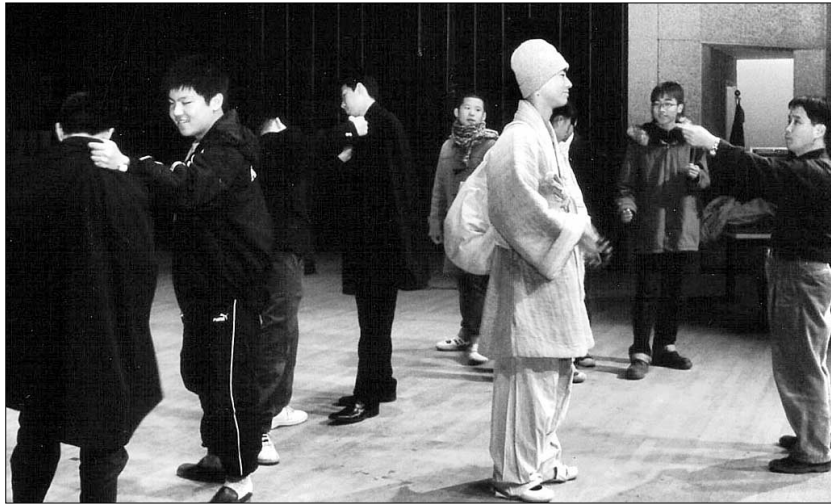
한운은 스님의 일대기를 구도과정과 3.1운동 중심으로 그린 이 작품은 파라미타, 불교 보이콧아웃인 범어수호반 등의 학생 18명과 여자 역할을 위해 이지훈 과학 교사, 대진정보통신고 이주연 학생 등 모두 20명이 출연하며 공연 시간만 2시간을 넘는 대작이다.

12월부터 방과후를 이용해 시작된 연극 연습은 방학인 요즘은 하루종일 이어진다. 6일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까지 난방도 안 되는 소극장에서 연습이 계속됐다. 대사 외우기가 끝나 지금은 감정과 인물 성격 표현에 주력하고 있다.

만해 스님의 태호는 "친구들과 함께 1919년대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고 만해스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어 너무 뜻 깊은 시간이다."며 연극의 즐거움을 말했다. 또한 연극대사를 맡은 오모택 학생은 "법문을 주고받는 부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사도 많지만 민족을 위해 살다 가진 만해스님의 삶을 몸으로 느끼고 존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택은 이번이 국제영화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기쁨도 누렸다. 옆에 있던 영화와 영철이도 말을 거둔다. "연극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내가 모

## 중학생이 만든 불교연극 '님의 침묵' 무대 오른다

### 부산 금정중 연극영상반 '해오름' 작품



◇금정중 연극영상반 학생들이 27일 공연을 앞두고 한운은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님의 침묵'을 연습하고 있다.

### 만해스님의 구도과정·항일 내용 남녀학생 20명 출연... 2시간 공연

르고 있던 불교나 바르게 사는 법, 나라를 위하는 큰마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지난해 창단한 '해오름'은 교육청 주최의 각종 연극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지난해 제작된 영화 <문정기>에 출연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경주불교학생회 출신으로 이미 고등학교 때 <감로수>라는 불교연극 연출했고, 교사 극단 '조명이 있는

범어사, 맑고 향기롭게 등의 재경지원을 한데 어우러져 탄생한 '님의 침묵'은 27일 오후 3시는 학생들에게, 6시 30분은 일반에게 무료로 공연된다.

이석연 교법사는 "앞으로 성철스님, 동산스님 등 고승 대덕의 삶과 가르침을 소재로 한 청소년 불교연극 대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첫 사찰 교향악단 탄생

### 영남불교대 18일 창단식... 합창단과 협연

불교계에서 최초로 사찰 교향악단이 창단한다.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은 18일 대법당에서 불교교향악단을 창단한다. 이날 창단식을 겸한 공연에서는 영남불교대학합창단과 '관세음보살 찬가'를 협연한다.

영남불교대학은 교향악단 창단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대구지역의 불자 음악인들을 섭외하는 등 치밀한 준비작업을 거쳐 현재 35명의 단원으로 구성을 마쳤다. 지역 불교계 음악인들로 구성된 교향악단 입원에는 영남불교대 학장 우학스

님이 이사장을, 단장에는 찬불가 작곡가 이달철씨, 감독에는 이상대 경북도립교향악단 사무국장, 실무책임에는 강주현 황해사 불교합창단 지휘자가 선임됐다.

영남불교대 복지관 지하공간에 사무실 겸 연습실을 마련한 교향악단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주 2회 연습을 통해, 각종 불교계 행사 등 연 10여회 이상의 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이달철 교향악단 단장은 "교향악단이 만들어진 만큼 완성도 높은 창작곡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적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향악단이 필수적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불교대 교향악단은 첫 공연으로 4월 9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영남불교대학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어린이합창단이 협연하는 교향곡(cantata)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노래는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이달철 작사/우학스님 작곡)을 노래로 표현한 작품으로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주시간만 50분 정도 소요되는 대곡이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 범어사·불국사 문화관광 중심지로 문화재 복원·대형주차장 확보

금정산성과 범어사 일대의 문화재가 복원되고 시민 편의시설도 대폭 정비될 예정이어서 부산 관광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정구청은 올해 '금정산과 범어사 일대 종합 정비·복원 계획'을 수립해 문화재를 복원하고 관광객 유치에 위해 시민편의시설을 대폭 정비한다. 구청은 효율적인 성과 관리와 보수유지를 위해 90% 이상이 사유지인 금정산성 주변 땅을 매입키로 했다. 범어사 말사인 정수암 요사채와 국청사 일주문 등도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개축되고, 경내 화장실과 하수시설, 주차장 등도 7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 대폭 정비된다.

이 밖에도 구는 범어사와 '불교문화축제'를 신설, 승무와 미술전 다도시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 계획이다.

한편 경주 불국사 주변 주차장 공사도 상반기 중 착공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150억 원의 민자금을 유치, 차량 12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 건설 공사를 오는 2004년 완공예정인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천미희·박원구 기자

## 부처님오신날 연꽃 볼수 있게 된다

### 경북농업기술원, 조기개화기술 개발 나서

앞으로 여름에만 피는 것으로 알려진 연꽃을 초봄인 부처님오신날에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부처님오신날 전후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연꽃 조기개화 기술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지금까지의 연꽃은 7-9월에 피어나고, 분화가 3월 정도 때 매우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작 부처님 오신날 등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상품으로 선보일 수가 없어 연꽃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돼 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원은 2005년까지 3년여에 걸쳐 연꽃의 계통, 재배조건, 생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꽃 조기개화 기술개발과 연꽃 분화생산 재배기술 개발에 나선 계획이다. 박원구 기자



◇영남불교대 교향악단 단원들이 5일 영남불교복자관 연습실에서 첫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갔다.

### 고교·대학생에 장학금

### 불교TV 열불공양모임

불교TV 열불공양모임(회장 하성심)은 6일 사무실에서 제3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 불교TV 회장 태웅스님, 하성심회장을 비롯 회원 1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에서 하효련(부산대 재학) 학생을 비롯, 8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총 4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 이어 태웅스님은 '참 불자가 되는 길'이라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배우는 것은 바른 법을 사해에 널리 펼치기 위한 것이니 보시를 행하며 진정한 불제자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가시오가피하면, 함박재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자  
강 훈 구 대표

## 함박재를 꼭 확인하세요!

### 함박재농장에서 20년간 재배한 100% 국내산 가시오가피 사용!

- ▶ 10만평의 대규모 직영 농장
- ▶ 충남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 ▶ 한국표준 협회 으뜸상품으로 선정



■ 국제 생약학계의 권위자  
독일 바그너(H.Wagner)박사도 격찬한  
"함박재 가시오가피"  
(2002.7.24 함박재농장방문)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KNS 건강할 삶을 추구하는 기업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 전화상담 및 자료신청 : (02)2272-4900

## 기적의 솔잎기름(송엽유)

송엽유 97% / 천연토크페를 3%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솔잎기름!  
진강의 역사를 바꿔보자



특허출원 40-2000-0059718 가격 : 275,000(2개월분)  
상품출원 4-2000-043911-1 카드할부 가능

### 기적의 솔잎

옛부터 민간식이요법 차원에서 식용되어 왔고 또한 학자들에 의해 지금까지 연구 검토된 바 솔잎은 피를 맑게 하고 젊음을 유지시켜주며 혈액의 콜레스테롤을 녹여 노폐물을 제거시킴으로 몸이 가볍게 되고 인체의 기를 충만하게 하며 노화를 방지하고 혈액이 좋아지면 혈을 다스리게 오장육부의 순환을 도와 젊음을 유지시켜 연년익수의 신원이 있다고 한다.

### 적송원

◆ MBC 뉴스데스크 2000년 11월 21일(목)방송내용  
◆ KBS뉴스 2001년 1월 25(목) 방송내용

### 적송원을 드셔야 할 분

(동의보감), (산농본초경), (본초강목)등 30,40여 의서에 저술되어 있는 솔잎에 관한 건강법을 인용하면  
고혈압, 비만, 신경통, 통맥경화, 고콜레스테롤(혈당이상), 변비, 치질, 관절염, 당뇨병, 뇌졸중, 이명통, 간경변증, 심장병, 위장장애, 뇌일혈, 치매증, 체질개선, 체지방분해 외 170여가지 예방 및 치료된다 기록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45-10 경인 B/D 4층  
TEL (032)545-6730 FAX (032)551-2449

※ 구매이시는 모든 불기부들께 오얏떡 108염주목걸이를 증정품으로 드립니다.

## 기문둔갑 강의 안내

- 교육 장소: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문의: 961-0870 ~ 2)
- 개강 일시: 2003년 3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 기초반 (오후 7시 - 9시)  
매주 수요일: 고급반 (오후 7시 - 9시)
- 수강료: 학기당 16만원 (16주)  
※ 60세 이상은 50%할인 혜택으로 8만원
- 원서접수: 2003년 2월 3일부터 - 2월 28일까지
- 접수장소: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부 (체육대학 2층)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부 인터넷 접수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cce.khu.ac.kr>)
-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반명함 사진 2매
- 수강과목: 기문역회 (기문둔갑: 사주, 작명, 택일)



○ 담당 교수: 손혜림  
(민간 기문역학원장)  
TEL 02-3476-3433, 3430  
<http://www.gimun.net>

※ 특전: 경희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기문역학원 창업시 관리 지원

일반적인 명리학이 단지 운명을 추측하여 추정하는 추명학이라면, 기문둔갑은 정해진 운명의 바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명명학입니다. 본 강의는 단군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통의 특수비법을 현재의 전맥자 이론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전수해드립니다. 특히 사찰운영이나 포교사업을 하시는 분, 그리고 혼미한 세상의 등돌이 되고자 하시는 사명감을 지니신 분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학문입니다.